



제23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빙상(소프트트랙) 500m와 1000m(IDD성인부)에 출전한 윤자현(원쪽)이 경기를 뛰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장애인체육회



'제23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 출전한 전남의 최재형(한국농어촌공사)이 남자 크로스컨트리스키 4km Classic과 6km free IDD(동호인부) 종목에서 총 2개의 금메달을 획득,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사진제공=전남도장애인체육회

## '감동의 겨울스포츠'... 광주·전남 선수단 열정 빛났다

### 제23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폐막

#### 광주, 쇼트트랙 윤자현 500m·1000m서 성과 전남, 크로스컨트리 최재형 2연패 등 맹활약

전국장애인동계스포츠 대회제인 '제23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가 지난 30일 폐막. 3일간의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에서 컬링·빙상 2개 종목에 20명의 선수단이 출전한 광주 선수단은 종합순위 17위(240점)에 올랐다.

지난 대회(17위·221점)와 순위는 같지만, 점수는 소폭 상승했다. 선수단 규모가 더 감소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의미 있는 성과다.

이번 대회 빙상(소프트트랙)에 출전한 윤자현은 500m와 1000m(IDD성인부) 최종 결승에 진출. 각

각 최종 4위와 5위에 올랐다. 윤자현은 지난 대회 500m·1000m(IDD성인부)에서 예선을 거쳐 최종 결승에 진출, 각각 최종 5위의 성적을 거둔 선수다.

20회 동계체전에서는 남자 500m, 1000m 성인부에서 동메달 2개 획득하기도 했다. 이번 대회에서도 활약을 이어가며 광주 선수단의 점수 대부분을 책임졌다.

휠체어컬링에서는 선수부 정해천, 맹분호가 혼성 2인조에 출전했다. 이어 조영철, 김승일과 함께 혼성 4인조에 나섰다.

이번 대회 8강 진출을 목표로 출전한 광주컬링선

수단은 전지훈련 등을 통해 기량향상을 도모했으나, 예선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컬링선수들은 당초 목표였던 8강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이번 대회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차기 대회 8강 진출을 이뤄내겠다는 목표를 내비쳤다.

한상득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은 "열악한 훈련 환경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다해 매 경기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광주가 장애인 동계스포츠의 불모지로 남지 않도록 동계 종목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6개 종목에 83명이 참가한 전남 선수단은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8개를 따내며 종합 6위(1만2243점)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9위·8396점) 3계단 상승한 성과다. 다만 종합 4위를 바라보며 신규 선수 3명(컬링 2명, 하키 1명)을 영입했으나, 아쉽게 목표 달성을 이루지 못했다.

휠체어컬링에서는 선수부 정해천, 맹분호가 혼성 2인조에 출전했다. 이어 조영철, 김승일과 함께 혼성 4인조에 나섰다.

혼성 휠체어컬링 2인조 방민자·정승원(한전 KDN)은 안정적인 호흡을 바탕으로 전남 선수단의

첫 메달인 동메달을 안겼다. 두 선수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전남을 대표하는 컬링 선수로 꾸준히 활약하고 있다.

'크로스컨트리 최강자' 최재형(한국농어촌공사)은 남자 크로스컨트리스키 4km Classic과 6km free IDD(동호인부) 종목에서 총 2개의 금메달을 획득, 지난해에 이어 대회 2연패를 오르는 흐름을 이뤘다. 그의 활약은 개인의 성과를 넘어 전남의 크로스컨트리 종목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

빙상 종목에서는 유승협(호반건설), 박정철(호반KPS), 장수빈 선수가 500m와 1000m 종목에서 각각 동메달 2개씩을 획득. 총 6개의 메달을 따내는 성과를 거뒀다.

아이스하키팀은 치열한 8강전을 펼친 끝에 아쉽게 폐배해 최종 5위로 대회를 마무리했으나,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줬다.

박정현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은 "매서운 추위 속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한 선수들의 열정

과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예전 속에서도 동계 종목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알파인스키, 스노보드, 크로스컨트리스키, 바이애슬론, 아이스하키, 컬링, 빙상(소프트트랙) 등 7개 종목에서 선수부, 동호인부로 나뉘어 펼쳐졌다. 자체 장애, 시각장애, 지적(발달)장애, 정신장애 선수 650명과 임원 및 관계자 350명 등 총 10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기량을 겨뤘다.

특히 이번 대회는 오는 3월 펼쳐지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폐럴림픽의 전초전이었다. 이에 동계 폐럴림픽에 출전하는 한국 장애인 간판 선수들이 대거 출전했다. 훨제어컬링 믹스더블 국가대표 백혜진-이용석과 알파인스키 활강 최사라, 파리 크로스컨트리 김윤지 등 폐럴림픽 메달 후보들이 경기력을 접경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 광주도시공사 핸드볼, 인천시청 꺾고 '홈 첫 승'

광주빛고을체육관서 33-25 승  
최수지 7골·2도움 경기 'MVP'

김지현 6골·함자선 5골 등 힘 보태  
골키퍼 이민지 14세이브 활약 눈길



30일 광주빛고을체육관에서 열린 인천시청과의 신한 SOL Bank 2025-2026 핸드볼 H리그 여자부 1라운드 5차전에서 광주도시공사 최수지가 점프슛을 하고 있다.

지역 상대 윙 슛을 잘 막아냈다. 광주도시공사는 김금정의 득점 이후 이효진이 엠티꼴을 터트리면서 4-2로 앞서나갔다.

공세는 계속됐다. 함자선이 우측 윙 득점을 올렸고, 김지현 또한 9m 중거리포를 터트렸다. 분위기는 이며 기울었지만, 아쉬운 실수도 나왔다. 광주도시공사는 상대 공을 가로채 공격권을 잡았으나 교대 과정에서의 실수로 김금정이 2분간 퇴장을 받았다.

이후 함자선과 최수지가 좌우를 흔들며 연달아 윙 득점을 기록했다. 이로써 전반전은 17-11로 끝이 났다. 후반전은 인천시청의 반격이 거셌으나,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상대는 시작과 함께 신다래의 돌파와 구현지의 6m로 추격에 나섰다. 이어진 7m 드로 상황에서는 유정원의 선발이 빛났다. 광주도시공사는 함자선의 윙 득점으로 다시 격차를 벌리기 시작했다. 김

지현의 중거리 성공 이후에는 이민지가 상대 김보현의 윙 슛을 막아냈다. 23-17에서는 최수지와 연지현이 나란히 6m를 적중시켰다.

인천시청은 신다래와 장은성, 구현지 등이 골을 넣으면서 분위기 반전을 노렸다. 하지만 최연아, 김금순, 윤별 등이 추가점을 합작하면서 승기를 굳혔다. 결국 경기는 33-25 광주도시공사의 승리로 끝이 났다.

경기 MVP에 선정된 최수지는 "연패를 해서 이번 경기는 이어야 한다는 목표로 해서 열심히 뛰었다. 그만뒀다가 복귀해서 부담은 큰 데 책임감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기는 한데 서서히 체력을 올려서 후반에 도움이 되려고 열심히 하고 있다. 쉬었기 때문에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 경기를 기회로 자신감이 많이 회복됐다"라고 승리 소감을 전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시장애인체육회와 유디수완치과의원이 장애인체육인의 구강 건강 증진과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광주장애인체육회-유디수완치과의원 건강증진·의료복지 향상 업무협약 체결

광주장애인체육회와 유디수완치과의원이 협약을 체결했다.

한상득 광주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장애인체육인의 치아 건강 증진에 힘을 보태준 신승우 대표원장님을 비롯한 유디수완치과의원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 다양한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장애인체육인의 복지 향상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신승우 유디수완치과의원 대표원장은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장애인들의 치아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속적인 의료 지원과 맞춤형 진료로 건강한 지역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유디치과의원은 수원 롯데아울렛 맞은편 스타벅스 건물 5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환자 중심 1:1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는 임플란트, 크리온·충치 치료 전문 치과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